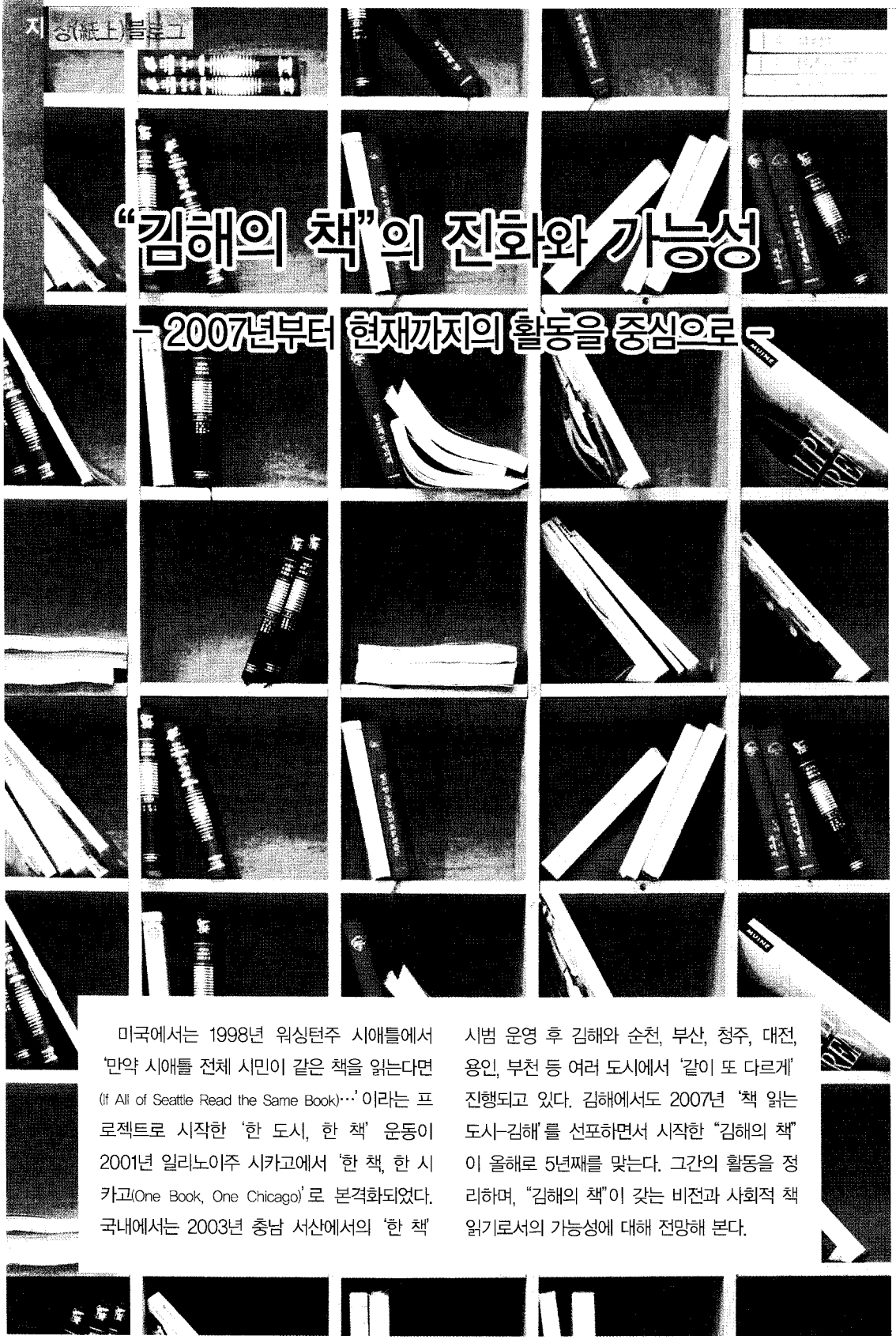


"김해의 책"의 진화와 가능성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1998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만약 시애틀 전체 시민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 이라는 프로젝트로 시작한 '한 도시, 한 책' 운동이 2001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로 본격화되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충남 서산에서의 '한 책' 시범 운영 후 김해와 순천, 부산, 청주, 대전, 용인, 부천 등 여러 도시에서 '같이 또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해에서도 2007년 '책 읽는 도시-김해'를 선포하면서 시작한 "김해의 책"이 올해로 5년째를 맞는다.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김해의 책"이 갖는 비전과 사회적 책 읽기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본다.

"김해의 책" 시작 배경

김해시는 2007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도시발전의 비전으로 '책 읽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책 읽는 도시-김해"를 선포했다. 김해는 경남에서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으로 최근 인구 50만을 넘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15번째의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가 되었다. "책 읽는 도시-김해"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판단과 책 읽기를 통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내건 정책이었다. 책 읽기를 위한 환경으로서의 도서관에 주목했고,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공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의 통합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도서관의 접근점을 확대했다.

김해시는 외형적인 부분만 키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지 고민하였고, 책 읽기에서 답을 찾았다. 미국의 수필가 에머슨이 "같은 책을 읽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같은 책을 읽은 후의 느낌과 생각 혹은 정서를 나누며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갖도록 시 차원에서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김해시민이 함께 읽는 책', 곧 "김해의 책"은 이런 이유로 탄생했다.

본격적인 "김해의 책" 활동

"김해의 책" 활동을 처음 시작한 2007년에는 1500년 전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가야문화를 복원한 소설가 최인호의 『제4의 제국』을 선정하였다. 발붙이고 사는 땅에 대한 인식을 여는 정신문화적인 상징성을 띠는 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김해와 관련 있는 책이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폭넓은 독서체험을 하기에 유리한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2007년의 경험을 통해 개개인에게 스며들 수 있는 '테마'를 고민하였고, '김해의책추진협의회'는 2008년 김해시민이 바쁘게 사는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장'을 주제로 한 김려령의 『완득이』를 "김해의 책" 대표도서로, 유은실의 창작동화 『멀쩡한 이유정』을 어린이도서로 각각 선정하였다. 2009년에는 개인의 성장 이후 처음 만나는 공동체인 가족에 대해 새롭게 환기시키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이혜란의 그림책 『우리 가족입니다』를 선택하여 한 해 동안 "가족, 인간다움의 근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2010년은 가족의 논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며 "사회를 움직이는 힘-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시대 멘토 한비야의 『그건, 사랑이었네』와 세상을 움직이는 역동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조명한 어린이도서 김미애의 『도서관 벌레와 도서관 벌레』를 "김해의 책"으로 정했다. 그리

〈표〉 선정도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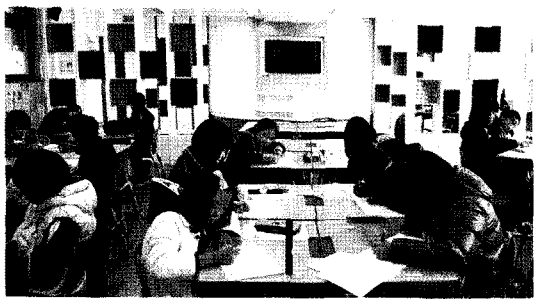
연도	주제	대표도서	어린이도서
2007년	가야문화	『제 4의 제국』 (최인호 / 여백미디어, 2006)	-
2008년	성장	『완득이』 (김려령 / 창비, 2008)	『멀쩡한 이유정』 (유은실 / 푸른숲주니어, 2008)
2009년	가족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 창비, 2008)	『우리 가족입니다』 (이혜란 / 보림, 2005)
2010년	사회참여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야 / 푸른숲, 2009)	『도서관 벌레와 도서관 벌레』 (김미애 / 파란정원, 2010)
2011년	환경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박경화 / 북센스, 2006)	『얼음소년』 (조원희 / 느림보, 2009)

고 5년째가 된 올 해는 구제역, 일본의 쓰나미 등 계속되는 재해 앞에서 더 이상 무심할 수 없는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환경생태운동가 박경화의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와 함축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렬한 조원희의 그림책 『얼음소년』으로 확정지었다.

연초에 "김해의 책"을 선포하면 1년간 긴 호흡으로 각계각층에서 책을 읽고 나누는 활동이 진행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해의 책" 선정발표회 및 작가와의 만남, 여러 사회단체 및 초 · 중 · 고등학교가 함께하는 독서릴레이 운동, 각 단체별 독후발표대회,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총망라하는 "김해의 책" 독후감 발표대회 등이 있다.

▲ 선정발표회

▲ 작가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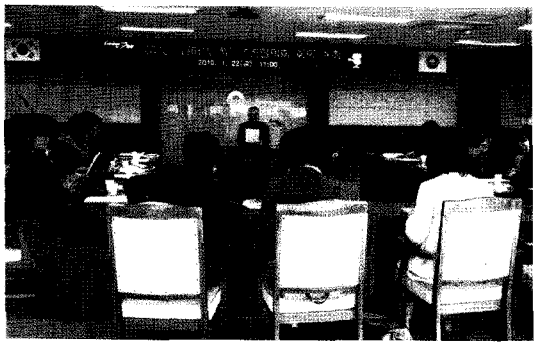
▲ 독후감 쓰기

"김해의 책"의 특성

▲ 어린이를 위한 가족동극

2007년 "김해의 책"을 시작한 김해는 다른 도시의 경험을 참고삼아 김해만의 특징적인 면모로 발전시킨 것이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김해의 책"으로 단 한 권의 책만 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한 책' 운동의 어원적인 상징성을 염두한다면 실제로 '한 해 동안 함께 읽는 한 권의 책'을 의미하겠지만, 앞서 '한 책' 운동을 펼친 도시에서 전 계층이 함께 읽기 유리한 다소 읽기 쉬운 책(어린이책 혹은 '어른을 위한 동화')을 선정하다보니 결국 '한 책' 운동 대상 독자층이 어린이에게로 한정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 책' 운동의 기본적인 취지가 시민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므로, 김해에서는 일반도서가 주로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책이라 판단하여 연령의 제한 없이 '한 책'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의식이 담아있는 어린이책을 별도로 선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에서는 "김해의 책" 동극을 개최하여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한 책'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김해의책추진위원회 회의

두 번째 특징적인 면은 '김해의책추진위원회(이하 협의회)' 이다. 협의회는 "김해의 책" 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구심점으로 김해시에 위치한 시립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와 초 · 중 · 고등학교 사서교사 혹은 독서 담당 교사, 대학 교수, 작은도서관 대표 및 실무자, 문인협회원, 어린이책 관련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자 대표성을 띠고 있는 협의회원들은 김해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협의회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시청 내 "김해의 책" 전담부서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도시의 사례를 통해 '한 책' 운동이 담당부서 없이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부가적인 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때 안정성 확보 등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관 주도의 운동은 행정절차의 복잡함이나 실적보고 위주의 사업이 될 위험이 있긴 하지만 강력한 추진력은 매우 큰 장점이다. 김해시는 "김해의 책" 사업의 주체로서 협의회를 보완하고 지지하며, 관의 행정력과 민의 유연함을 합쳐 적극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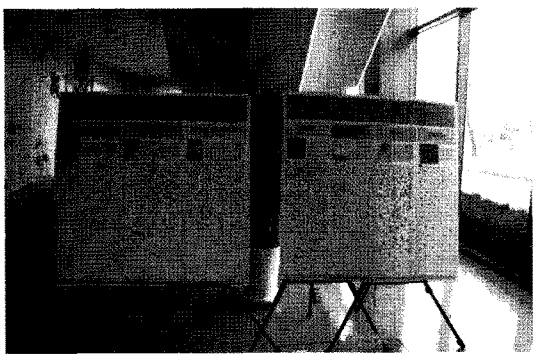
네 번째로는 '김해의 책 사업활동보고서' 발간이다. 사업활동보고서는 시민들의 토론에 도움을 주는 토론 자료(Toolbox)와 별개로 한 해의 사업을 완료할 때 실제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체 평가 자료집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김해의 책" 관련 경험을 축적하는 의미도 있다.

"김해의 책" 진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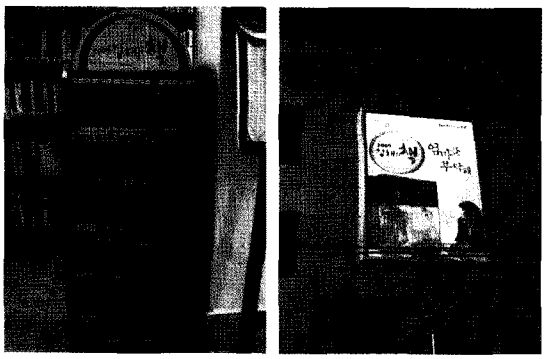
한 해가 다르게 "김해의 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초반에는 협의회에서 후보도서로 몇 권을 추려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최근에는 후보도서 선정 과정에 시민들의 추천도서 제출 의견이 늘고 있다. "김해의 책" 확정을 위한 후보도서를 두고 하는 최종 투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처음으로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찾아 협의회원들이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스티커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해의 책"이 선정되면 공공도서관에서는 외벽에 "김해의 책"을 알리는 대형 판넬을 설치하여 연중 내내 책을 알리고, 도서 대출에 불편이 없도록 대량 구비하여 별도로 "김해의 책" 코너를 꾸민다.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도서관별 "김해의 책" 대출 권수나 독서릴레이 참가자 수, 토론 및 "김해의



▲ 도서선정을 위한 시민의견 투표



▲ "김해의 책" 코너와 상시홍보를 위한 대형 판넬

책" 독후감쓰기 대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김해의 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도 매우 유연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책을 선정하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토론이거나 배움이 되고 있다. 협의회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학교에서 "김해의 책" 활동이 공식화될 수 있도록 새 학기 교과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한 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책 읽기가 내밀한 자기만족을 위한 개인만의 경험으로 국한되지 않고, 소통과 공감을 위한 관계의 매개가 되고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 "김해의 책" 주제가 점점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되면서 사회적인 의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발의하는 집단의 경험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올 해에는 '환경' 도서를 함께 읽고, 폐휴대폰 수거나 쓰레기 줄이기 등 개개인의 실천이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마치며

매 년 새롭게 풍성해지는 "김해의 책"을 만나고 싶다.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내실을 함께 키워가야 하겠지만, 기본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동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시민이 없어야 하고, "김해의 책" 관련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즐거워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김해의 책"이 평소에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캠페인적 성향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도시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의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원래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몇 년 만에 책을 처음 읽는 사람도 남여노소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선택해서 참가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김해의 책"이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하는 전통이자 지역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글 | 김 은 엽
김해시립진영한빛도서관 사서
eunyeop@korea.kr